

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

세상에는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.

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,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.

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'선생님'이라 부르고,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'사장님'이라 부른다.

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하는 사람을 '마누라'라고 부른다.

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뜻이고,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뜻이다.

그렇다면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?

세상 살기 싫다는 뜻이다.